

함평축협 축산물 유통센터 준공...“함평천지한우 경쟁력 제고”

38억원 투입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내 지상 2층 규모

한우지육 4천두·가공품 1일 4천팩 생산...지역경제 활성화

함평군의 함평천지한우의 브랜드 가치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함평축협 축산물 유통센터가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함평군은 2일 “함평축협 축산물 유통센터 준공식이 이날 오전 이계호 국회의원, 이상익 군수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고 밝혔다.

함평축협 축산물 유통센터는 총 사업비 38

억원을 투입하여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내 부지면적 9,916㎡, 건축면적 1,811㎡(지상 2층) 규모로 준공됐다.

유통센터에는 사골추출과 우지육 가공 등을 위한 최신 설비가 갖춰져 있어 함평천지한우로 만든 다양한 가공식품들이 이곳에서 생산·유통된다.

또한 1인 가구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

는 밀키트 산업 확대에 발맞춰 함평천지한우를 활용한 소불고기, 밀푼유니베 등 고급화된 밀키트를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군은 고급육 생산을 위해 함평천지한우 명품 브랜드화 사업에 10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함평천지한우가 전국 1등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유통센터에서 연간 한우지육 4천두, 곰탕 등 가공품 1일 4천팩 생산이 가능하다”며 “센터 운영으로 축산업 종사자 소득향상과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평=김광준기자



목포시, 가을 내내 문화예술행사로 풍성

세계마당페스티벌·문화재 대야행·뮤직플레이·항구축제 등 다채



올린다. 지난 7월 소야행에 이어 펼쳐지는 대야행은 근대 목포 거리 재현, 공연, 체험, 장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근대로의 시간여행을 제공한다.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갯바위문화타운에서는 올해 처음 선보이는 'K-music의 산실, 목포Music Play(9.30.~10.2.)'가 개최된다. 각종 장르가 융합된 음악축제로 '전국경연대회', 'TOP 뮤지션 공연', '댄스배틀대회', '난영극장'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갯바위문화타운에 위치한 목포문학관 일원에서는 9월 30일부터 10월 23일까지 '시월애(愛) 목포문학여행'이 운영된다. 목포의 풍부한 문학 자원에 관광을 접목한 문학관광상품으로 문학에 테마로 프리마켓, 전시, 토크콘서트 등 온가족이 함께 체험할 수 있는 문학프로그램이 매주 펼쳐진다.

9월 28일부터 10월 7일까지 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는 16개 광역시·도 대표 무용단과 무용인이 참가하는 제31회 전국무용제가 진행되는데 '찾아가는 춤서비스', '세대공감 댄스페스티벌' 등 지역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부대행사로 다채롭게 펼쳐질 예정이다.

10월 14~16일에는 목포항 및 삼학도 일원에서 3년만에 '목포항구축제'가 열린다. '청년과 함께하는 가을파시'라는 주제로 개최되는데 전통파시존, 근대파시존, 청년파시존 등으로 구성돼 파시체험, 공연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이에 앞서 10월 13일에는 전야제로 삼학도 특설무대에서 MBC난영가요제 축하방송이 진행된다.

목포=기동취재본부

목포시가 본격적으로 오프라인 문화예술행사의 기지개를 펴고 전국 규모의 대형 축제까지 굽적한 행사를 잇따라 선보인다. 목포를 대표하는 관광지인 근대역사공간에서도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진다. 오는 16일 첫 공연을 시작을 매주 금·토요일 근대역사관1관 야외무대에서는 '청춘연가'가 개최된다. 청춘연가는 '목포의 눈물', '오빠는 풍각쟁이' 등 옛노래의 스토리를 뮤지컬 형태로 풀어내는 공연이다. 23~25일에는 5년 연속 문화재청 활용사업으로 추진 중인 '문화재 대야행'이 막을

무안군,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성황리 마쳐

무안군은 지난 2일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800여 공직자가 참석한 가운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은 9년 동안의 입법 노력 끝에 작년 5월 제정되었고 금년 5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들이 법에 따른 10가지의

무를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김희리 사무관이 강사로 나서 공직자의 5대 신고와 5대 금지의무에 대해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됐다.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로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지 않고 업무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행정의 신뢰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된다. 김산 군수는 “이해충돌 상황에서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군민의 신뢰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기자

신안군, 지역소생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관계인구 증대로 지역소멸 탈피...관광 활성화 기대

신안군은 최근 전남관광재단에서 한국관광공사, 강진군, 전남관광재단 및 청년마을 운영업체와 지역소생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박형호 신안군 부군수와 강진군, 한국관광

공사 광주전남지사, 전남관광재단, 스피스, 아트랩소디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협약은 관광을 통한 지역사회 활력제고 및 관계인구 증대를 위하여 상호 유기적인 협업을 강화하고자 추진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관계인구 증대를 위한 관광사업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지역관광자원·지역축제 연계 플랫폼 홍보 및 운영 지원 ▲신안-강진 청년마을 교류 프로그램 운영 및 행사 지원 ▲청년마을 프로젝트 홍보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신안=이명주기자

영암군, 어촌 경제·관광 증대 '갈치 낚시터' 한시 운영

영암군 현대삼호중공업 앞 해상에는 8월 20일부터 불야성을 이루는 갈치낚시가 한창이다. 갈치낚시는 12월 10일까지 계속된다.

현대삼호중공업 앞바다는 항만구역으로 조업이 금지된 구역이나 어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영암군에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허가를 받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앞서 영암군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참여 어선 20척에 대하여 목포해양경찰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구명설비 비치 여부 등 안전 점검을 마친 바 있다.

영암 갈치낚시는 현대삼호중공업의 멋진 조



도 과언이 아니다.

선소 야경을 즐기면서 여유롭게 낚시를 즐길 수 있다는 특색이 있다. 그중에 짜릿한 은빛 갈치의 손맛은 일품으로 낚시꾼들의 명당이라 해

영광군, 농촌신활력플러스 칠보리 아카데미 1기 수료식

영광군은 지난 1일 농업인회관에서 '영광군 농촌신활력플러스 칠보리 아카데미 1기 수료식'을 통해 60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칠보리 아카데미는 칠보리산업 관련 지역활력 동가의 역량강화를 위해 공동과정인 지역리더 대학과 전문과정인 칠보리대학 2개 과정으로 4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 진행되었다.

교육과정은 지역민의 수요조사를 통해 칠보리 관련 창업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공동과정에서는 농업법인의 이해 및 유통·마케팅 활용, 보릿대공예 등 창업에 필요한 기본교육을 추진하였다.

영광=서희권기자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